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에 동반하여 횡문근 용해를 보인 급성 신부전 1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박규희 · 정성관 · 임형은 · 유기환 · 홍영숙 · 이주원

Acute Renal Failure with Rhabdomyolysis Associated with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Kyuhee Park, Sung Kwan Jung, Hyung Eun Yim, Kee Hwan Yoo, Young Sook Hong and Joo Won Lee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서론 :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은 항정신병약물의 중추신경계의 **dopamine** 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이 체질 반응으로 의식변화, 혈압의 급격한 변화, 고열, 근육강직 등과 같은 자율신경계 과민성, 무언증, 무동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응급성이며 치명적이어서 사망률이 4%에 이른다.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성인에서 발생하여 소아에서는 극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증례 : 8세 11개월 남아로 내원 당일 발생한 의식 변화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상 내원 한 달 반 전 헤르페스성 뇌염으로 20일 간 입원치료 받았으며, 이후 언어, 보행 장애 있어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항경련제 (**orfil**, **riotril**, **topamax**)를 복용하였다. 내원 2주 전부터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내원 10일 전부터 **chlopromazine**, 내원 1일 전부터 항정신병 약물인 **haloperidol**을 복용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 90/50 mmHg, 맥박 200 회/분, 호흡수 42 회/분, 체온 39°C로 생체 징후는 불안정하였고, 혼수 상태였으며, 땀노가 동반되었다. 혈액 검사 상 백혈구 15500/ μ L, Hb 12.9 mg/dL, 혈소판 57,000/ μ L 으로 감소하였고, AST/ALT는 4763/1096 IU/L 으로 증가하였다. BUN/creatinine 114/6.2 mg/dL, 나트륨 145.2 mmol/L, 칼륨 6.64 mmol/L, 칼슘/인 5.5/11mg/dL, 요산 16.5mg/dL으로 고칼륨혈증, 저칼슘혈증, 고인산혈증 및 고요산혈증을 동반한 급성 신부전 소견을 보였다. 소변검사상 요단백 3+, RBC 30-60 /HPF 및 **myoglobin** 양성소견을 보이고, FDP 양성, **fibrinogen** <200 mg/dL, **antithrombin III** 69%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을 보였으며, **CPK/LDH** 또한 177,140/14,976 IU/L 까지 상승하여 횡문근 용해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흉부 X선 사진 상에서는 우측 상엽에 폐렴 침윤이 보였다. 응급복막투석 및 항생제 투여 등 대증적 치료 시작 후 생체 징후는 안정되고 의식 및 혈액 검사는 호전을 보였으나 고열, 근육강직 등의 자율신경계 과민성 및 무언증 등은 여전히 보이고 있었으며 21일 간의 복막투석으로 급성 신부전과 자율신경계 과민성도 호전을 보여 이후 복막 투석 중단하고 대증적 치료 유지하며 입원 52일 째 퇴원하였으며 현재 언어장애 및 보행 장애에 대한 물리 치료 유지하며 외래에서 관찰 중이다.

결론 : 저자들은 소아에서 헤르페스성 뇌염 후 신경이완제 복용 중 발생한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에 동반하여 횡문근 용해를 보인 급성 신부전 1례를 경험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Key Words :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